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책자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2013년 발간자료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및 원저작자의 의도와 다른 복제, 편집, 배포를
금합니다.

SYMPOSIUM 2013

www.dcdcenter.or.kr

2013.
9. 10^(TUE)
3:00pm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2013년 심포지엄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일시 : 2013년 9월 10일 (화) 오후 3시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주최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순서

사회: 장승헌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상임이사, 춘천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 인사말 박인자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 기조발제 이세웅 | 국립발레단 명예이사장,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 발제 I **무용인의 직업창출과 직업전환**

발제자 : 장인주 <무용평론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2대 이사장>

- 발제 II **네덜란드의 직업전환 지원 프로그램 사례**

발제자 : Paul Bronkhors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IOTPD 회장>

- 발제 III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 환경개선을 위한 제언** “2013 전문무용수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발제자 : 박호빈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 댄스시어터 까두 예술감독>

- 토론 신동엽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매니지먼트 분야 교수

윤성주 |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초대 이사장

이종호 |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회장, SIDance 예술감독

장선희 | 세종대학교 무용과 교수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재)전문무용수 지원센터

| 기조발제 |



예술과 사회, 그리고 아티스트

이세웅 (국립발레단 명예이사장)

예술과 사회, 그리고 예술가

이 세 응* (국립발레단 명예이사장)

1. 현대사회와 무용, 그리고 예술가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가리켜 흔히 문화 다양성의 시대라고 말한다. 2001년 유네스코에 의해 채택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에는 문화 다양성을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는 시공간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과 사회의 독특하고도 다원적 정체성으로 구현된다. 자연에는 생물의 다양성이 요구되듯이, 인류에게는 교류와 혁신과 창조성의 원천으로서 문화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일 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 선언에는 또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문화적 권리에 대한 것도 명문화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와 특히 자신의 모국어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작품을 창작해서 배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충분히 존중하는 질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존중되는 조건 속에서 스스로가 선택한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변화의 시대, 창조와 혁신의 현대사회에서 문화 다양성과 관련해 중요한 부문이 바로 예술이다. 냉전과 이데올로기, 테러와 폭력이 여전히 난무하는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예술은 인간의 정서를 순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 가치를 지닌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예술의 가치와 예술가의 사회적 권리에 관심을 가져왔다. 1980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2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Artist)****가

* 국립발레단 이사장 역임. 현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은 20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종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중에서

채택되었다. 이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는 각국에서 예술인의 고용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영정 책임연구원은 “이 권고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회원국이 예술가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예술가들의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6장 ‘예술가의 고용, 작업, 생활여건-직업단체와 노동조합’에 관한 항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예술가의 사회적 권리는 곧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와 궁극적으로 삶의 질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예술가로서의 전문 무용수에 대한 논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든 역사를 통털어 무용은 다른 예술에 비해 인간 생활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지금도 가장 활발하게 다른 예술과 조우하고 있다. 미래에도 무용은 인접분야의 예술과 융합하며 가장 왕성하게 진화해 나갈 것이다. 그것은 바로 무용이 인간의 신체를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인체는 시각예술에서의 눈, 음악에서의 귀 혹은 문학에서의 상상력보다 더 광범위한 것이다. 사실상 무용은 예술을 연결시켜 주는 예술이다. 오늘날 춤의 영역은 인위적으로 인간의 수족을 다루는 인체가 연관된 모든 분야, 패션에서 약물까지, 그리고 질병에서 기계까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곧 인체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인 셈이다.

문화관광부는 무용 중기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책 제안서에서 세계 무용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세계 무용계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는 무용창작에서의 탈 장르 경향 및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한 타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작품 속에 문화 다양성을 담아내려는 시도가 성행하고 있으며 순수무용과 대중무용이 서로 융합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미래의 공연예술은 과학기술로 인한 네트워크의 발달을 통해 예술 행위자와 감상자가 다양한 소통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공연예술 발표무대가 확장될 수 있고 결국 이 같은 변화는 새로운 공연양식의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는 또 관객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 관객들은 단순히 공연을 보는 역할에서 벗어나 직접 예술 행위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향유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무용계가 대중화와 산업화의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함께 이 같은 세계 무용계의 새로운 흐름을 간파하고 향후 다가올 미래

**** 이 권고는 전문과 9개의 장(1.정의 2.적용범위 3.일반지침 4.예술가의 직업훈련 5.사회적 지위 6.예술가의 고용 작업 생활 여건 7.문화정책과 참여 8.본 권고의 활용과 이행 9.기존 혜택의 유지)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술가의 지위와 관련된 별도의 협약, 권고안 중 관련 조항을 부록으로 포함하고 있다.

*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와 예술인 복지”(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2009년 세미나 자료집)

의 무용예술의 변화를 예측,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 *

이번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주제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심포지움에서 기조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여러 관련 자료를 찾아 보니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정확하게 그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해내느냐 하는 것과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의 직군 중 무용수들과 관련된 것들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것인 만큼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함께 협력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외국을 중심으로 전문 무용수와 관련된 지원 사례와 지금 현재, 한국 무용계가 처한 환경 속에서 바라본 전문무용수에 대해, 그리고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앞으로의 사업 운용 방향에 대해 진단해보고자 한다.

2. 한국 무용계의 새로운 변화 양상

한국의 무용계는 창작 작업의 주체가 되는 전문 인력 중 핵심인 유능한 안무가의 경우 무용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몇몇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지만, 또 다른 핵심 인력인 무용수들의 경우는 숫자에서나 기량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전문 무용단의 창작 작업이 활기를 띠고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점차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무용 중기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책 제안서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 무용계의 새로운 흐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첫째, 전문 무용단체와 안무가의 중요성 부각
- 둘째, 무용수들의 해외 진출 확산 등을 포함한 국제교류 활성화
- 셋째, 지원제도의 다양화로 인한 무용시장의 확장
- 넷째, 예술교육의 중요성 부각과 무용교육 기회 확산
- 다섯째, 대학 무용과의 위축과 전공 인력 감소
- 여섯째, 무용 전문 인력과 전문 직종에 대한 관심 증대

* 무용 중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 자료집 (2007년, 문화관광부) 2008. 2 문화체육관광부로 개칭

** 문화관광부 2007년 정책 자료집

2003년부터 로또 복권 기금이 문화예술 쪽으로 유입된 데다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출범으로 전국 단위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직업발레단을 비롯해 전문 무용단체들의 공연지역 다변화 노력 등이 더해지면서 무용 대중화를 위한 노력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일급 공연장과 국제무용페스티벌을 통해 해외 유명 단체들의 내한공연이 늘어나면서 음악회나 전람회를 찾던 중산층 관객들이 무용과 접하는 기회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센터나 구민회관 등 문화공간에서 행해지는 강습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춤을 추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과 함께 무용예술의 대중성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국제교류의 경우도 불러들이는 교류, 내보내는 교류 모두 꾸준히 활기를 띠고 있다. 외국과의 공동 제작 기회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무용수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무용단체들의 해외공연 대부분이 여름 휴가철을 이용한 민속 페스티벌이나 박람회 문화행사 등의 참가가 주류를 이루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무용단체의 단독 공연 외에도 페스티벌과 현지 극장의 기획 프로젝트 참여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종래 아시아권에 머물던 공연 지역도 유럽과 남미 등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전문대학을 포함한 4년제 대학 무용과와 예술 중고등학교 무용 전공생들의 감소로 인해 무용과가 폐과되고 학과의 명칭이 바뀌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공연제작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래 단순한 창작 활동에만 머물던 무용 공연의 관행이 특정한 대상을 겨냥해 이루어지거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외 무대 진출을 염두에 두거나 어린이, 청소년, 젊은 연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표방하는 등 이른바 타겟형 제작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함께 1회성 공연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작품의 재공연을 통해 꾸준히 예술적인 완성도를 높여가는 레퍼토리화 작업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경향은 개인 무용가들이나 무용 단체들로 하여금 단순히 작품 제작에만 신경 쓰던 데서 기획, 홍보, 마케팅, 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가 영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해 아직은 소폭이긴 하지만 종래 공연을 대행하고 홍보하는 기능에 머물던 공연 기획사들의 역할이 제작과 유통 쪽으로도 확대되기 시작했고 무용수와 안무가만 있던 무용단체에는 새로이 기획과 행정을 담당하는 스태프들의 참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 이 같은 현상은 특히 발레 장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 문화관광부는 무용 중기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책 제안서에서 대학 무용과의 이 같은 감소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학을 포함해 50개가 넘는 대학에 무용과가 개설되어 있는 양적인 비대함을 감안하면, 오히려 무용계의 거품이 거두어지는 긍정적인 변모”로 진단하고 있다.

지원금 확보와 홍보, 유통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무용 비디오나 무용 사진 등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분야 전문인력들의 비중도 덩달아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한국 무용계의 새로운 환경변화는 장기적으로는 무용시장의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무용예술의 대중화와 생활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변모를 예견케 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 무용계의 새로운 환경변화는 또한 무용과 관련된 전문 인력들에 의한 보다 전문적인 기능의 분화를 더욱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연구한 <무용 전문인력 형성구조 분석과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무용분야의 직군은 안무, 무용수, 트레이너, 예술감독 등 37개 직종이나 된다.*

앞서 지적한대로 한국의 무용계는 최근 들어 안무가와 무용수, 무용교육자, 그리고 예술감독이나 단장 등 종래 한 명의 개인에게 중복적으로 행해지던 업무들이 개개의 역할이 더욱 분명하게 구분되는 형태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

이처럼 개개 직군의 전문성이 더욱 분명하게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이들 전문 인력들을 위한 차별화 된 지원의 필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2007년 재단법인 전문무용수 지원센터의 출범 역시 이 같은 변모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3. 예술분야 전문 직종과 전문무용수

2007년에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실시한 『2007 전문무용수실태조사』에는 ‘전문무용수는 전문적으로 춤추는 행위를 통해 무용예술 공연에 기여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업무용단에 소속되었거나, 창작활동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전문 무용단체에 소속되었거나, 매년 일정한 횟수 이상의 무용공연에 출연하는 프리랜서 무용수로서 춤추는 것이 주업인 무용수이다’라고 규정했다.

무용평론가 장인주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대략 전국적으로 5천5명 정도의 전문 무용수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실 무용과 관련된 여러 직군 중 무용수들 만큼 ‘은퇴’라는 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예술인은 없다. 같은 예술 장르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무용수들의 경우 몸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엄청나고 그만큼 다른 장르에 비해 빠른 은퇴를 재촉당하고 있다.

특히 발레 댄서의 경우는 40세를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30대 중반을 전후해 발레 활동을 그만둔다. 다른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활동하며 원숙함을 보이기 시작할 때 발레 전문 무용수는 무대를 접고 은퇴하게 되는 것이다.

* 무용 전문인력 형성구조 분석과 지원방안 연구(2005년, 문화관광부)

『2007 전문 무용수실태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발레무용수의 경우 '74.5%가 30대에 은퇴한다고 응답했다. 콜럼비아 대학의 조안 제프리(Joan Jeffri) 등이 조사한 <Making Changes>에 의하면 무용수들의 평균 은퇴 시기는 3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전문 무용수의 경우 다른 직업 집단에 비해 은퇴시기가 빠른 것도 문제이지만 전문 무용수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경력의 형성기간이나 교육받는 기간이 매우 길고, 어린 시절부터 무대에 설 때까지 무용에 전념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지식교육이나 직업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전문 무용수로서 사회의 문화발전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보는 무용수일수록 은퇴 후 제2의 사회생활의 영위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문무용수가 커리어의 막바지에 다다르거나, 새로운 커리어를 찾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들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단체로 국제 직업 무용수 직업전환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IOTPD)*가 있다.

이 기구의 홈페이지에는

-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이슈에 대한 인식을 국제적으로 고취시키고,
- 경험을 나누고, 정보와 후원을 얻기 위한 기회들을 마련하고,
- 사회적으로 댄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을 계획 및 장려하는 것을 IOTPD의 설립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IOTPD는

- 국제적으로 무용수 직업 전환 이슈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 개발
- 직업전환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댄스 커뮤니티에 서의 역할 수행
- 전환 프로그램을 설립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룹, 기구 및 나라들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댄서들 스스로 직업전환 과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도록 지원
- 유네스코나 유럽연합 같은 국제포럼에서 댄서들에 대한 직업 전환 이슈를 대변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 직업 무용수 직업전환 기구의 폴 브롱코스트 회장은 '직업무용수, 은퇴 이후 무엇을 할 수 있는가'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지원이 필

* 스위스 로잔에서 Philippe Braunschweig에 의해 1993년 창설된 기구로 IOTPD에는 현재 8개국의 아래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Canada : Dancer Transition Resource Center

France : Centre National de la Danse

Germany : Stiftung TANZ - Transition Center Germany

Korea : DCD Center Korea

Netherlands : Omscholing Dansers Nederland

Switzerland : Association pour la Reconversion des Danseurs Professionnels (RDP).

United Kingdom : Dancer's Career Development

United States : Career Transition For Dancers

** 2005년 5월 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공동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요한 이유로

-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에 대한 보상
- 사회 속에서의 무용수들의 위상을 찾기위해
- 무용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위해
- 체계적이고 탄탄한 무용예술을 유지하기위해
- 무용수를 위한 투자는 곧 사회 전체를 위한 투자

등을 들었다.

『2007 전문무용수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3.4%가 필요하다'고 응답 했고, 직업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97.0%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직업 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교육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직업전환 재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사회적응에 대한 대학교육의 부재가 그 원인 일 수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모든 현역 전문무용수를 대상으로 은퇴 후 종사하고 싶은 희망 직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무용관련 직업으로 전직하고 싶다는 의견이 66.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무용 외 타분야에 대한 희망은 26.4%에 불과했다. 전문 무용수 중 한 차례라도 부상을 당해본 무용수는 90.2%로 나타났으며 부상과 은퇴의 연관성에 대해 83.3%가 '그렇다'라고 답해, 상해 시 적절한 재해보상 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직업 생애주기가 단축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전문 직종에서 종사한 사람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생산력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문무용수들이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무용 활동에서 축적된 예술적 감성과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살려 개인과 무용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4. 전문무용수들을 위한 외국의 지원사례

외국의 직업발레단이나 국제 콩쿠르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 인력 중에는 예전에 무용수로서 활동했던 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이 무용수로 소속했던 발레단에서 은퇴 후 다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인연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개인 아티스트들이나 무용 컴퍼니의 매니저들 중에서도 예전에 무용을 했던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무용수로서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무용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들이다.

국제 직업무용수 직업전환 기구나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경우도 가장 비

중이 높은 사업이 무용수들의 은퇴 후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것들이다. 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지원을 어떤 형태로 행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1) 전문무용수들을 위한 프랑스의 지원정책

프랑스의 경우 무용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과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감상 및 체험 지원이다.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크게 경력 형성 지원과 전문 인력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다.*

이중 경력 형성 지원은 ‘전문교육→ 직업세계 진입→ 활동→ 은퇴 및 전직’이라는 무용 전문 인력의 형성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무용관련 고등교육에서 무용수 국가학위 제정, 신규 무용수의 직업세계로의 진입 지원, 무용교사 양성 확대, 무용수 직업 전환 지원 등이다.

무용수 직업 전환 지원정책은 노동 고용부 및 노사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정책 내용은

- 학생들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 무용 교육시 학생들에게 직업전환을 준비시키기 위해 문화예술 내 다른 직업세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무용 전공자들에게 일반 고등학교 졸업학위(BAC)를 취득하게 하며 개개인에 대한 진로지도 강화
- 무용 강사에 대한 교육 강화 : 무용교사기능적합자격증 과정에 무용수 직업전환 관련 모듈 첨가
- 두 번째 직업 준비 훈련참가 지원: 무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훈련 참가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하며 무용수 직업전환을 위한 기금 출연(문화부는 300,000 유로 출연), 건강보험 운영에서 발레 무용수의 부상 위험 등 특성을 고려
- 무용수 직업경로 관찰 및 지원 : 국립무용센터가 국립고용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무용수들이 자신의 직업경로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 제공, 무용 분야 의료에 관한 학습 및 연구시설 설치 방안 강구 등이다.

2) 국제 직업무용수 직업전환 기구(IOTPD)의 Philippe Braunschweig 프로그램

무용수들의 경우는 그 특성상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게 된다.

* 전문인력 활동 지원은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위한 장소 지원(국립무용창작센터 확대와 무용발전센터지원, 작업 공간 제공 확대 등)과 무용 창작/공연/확산을 위한 수단(무용단체 입주 공간 지원, 스튜디오 이용 지원, 독립 무용단체 지원 확대, 무용창작 연구 지원, 현신적 움직임에 대한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 무용 전문인력 형성구조 분석과 지원방안 연구(2005년, 문화관광부)

최근 들어 해외무대로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프랑스의 경우 직업전환을 위한 재훈련 지원금을 지원받기에 무용수들은 산발적인 경력이 적격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무용수들을 위해 해마다 IOTPD에서는 IOTPD Philippe Braunschweig Grant for retraining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보조금은 국제 경력이 없는 무용수 혹은 해외활동을 하였으나 해외활동을 한 해당 국가에서 지원 자격을 얻지 못한 댄서들을 위한 것이다. 각 3,000유로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전액 지원 및 일부를 지원한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무용수의 자격조건은 직업전환 또는 재훈련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프랑스 및 국외 지원 모두 포함), 프로그램에 지원 신청 전 1년 전에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 하여야 한다. 또한 활동기간 최소 10년 동안 60개월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어야 하며, 무용단 소속의 공연이어야 한다. 또한 IOTPD 멤버국 센터에 적어도 2년 동안 소속된 무용수라야 지원 가능하다.

3) 영국 전문무용수지원센터(DCD)의 지원 제도

영국의 전문무용수지원센터(DCD)는 가장 오랜 32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폭넓은 전문가와 신뢰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전문무용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영국 DCD에서는 전문무용수들을 위해 다음의 3가지에 대해 중점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경험이 풍부한 전문 상담가에 의한 감정적 · 정신적 지원
- 직업개발의 선택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을 위한 교육적 · 실질적 지원
- 자격을 갖춘 전문무용수를 위한 재교육 및 창업자금 지원

DCD는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새로운 직업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적절한 교육제공 기관을 어떻게,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해 늘 고심하고 있다.

DCD에서 제공하는 모든 재교육 지원은 무료이고 무용수 주도로 이루어지며, 센터와의 연락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한다. DCD는 직업관련 자료와 다양한 교육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자들이 이미 재교육을 마친 무용수들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나 이는 재교육기관과 센터와의 연계관계가 아닌 철저히 독립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무용수들에 대한 자문은 각 개인별로 이루어지며 전체 무용수들에게 똑같은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기대에 넘치거나 모자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로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제공한다.

중요한 점은 국적이나 무용경력, 단계와 상관없이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무용수들에게 DCD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는 것이다. 무용수가 현재 무용 활동을 하고 있던 전문 무용교육을 받고 있던 이미 은퇴를 하였든 간에 무용 이후의 삶에 대해 고려해 보는데 적절한 때란 없다.

이는 무용수들이 자신의 무용경력을 확고히 하기위해 여전히 활발하게 공연을 하고 고용상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피트니스 훈련 또는 재활 트레이너 등 직업전환에 필요한 재교육을 위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확실한 무용이라는 직업을 유지해 나가고 좀더 오래 무용수로 남을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DCD의 지원으로 무용계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재교육을 받은 전직 무용수들은 많은 국제 무용단체 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의 무용기관과 극단,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전직 무용수들은 교사, 안무 기록가(안무가의 안무를 무보 등을 전문적으로 기록하는 사람), 안무가, 예술관련 행정관 및 감독 또는 예술감독으로서 무용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무대디자인, 무용관련 사진·영화 등 영상기록, 물리치료, 무용수를 위한 피트니스 훈련사와 같은 직업으로 무용계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4) 미국의 지원제도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는 무용수들이 뉴욕의 롱아일랜드 대학에서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2년간 ABT 무용수로서 활약하다 4년 전 은퇴해 지금은 ABT회장의 보좌역을 하고 있는 수전 제프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제프 스스로도 그 강의를 듣고 있다. 무용수들은 수강료의 3분의 1을 부담한다.

무용수들은 춤 연습 때문에 잃는 것이 많다. 대학입학은 물론 고등학교 과정까지 중도 포기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무용수들이 30대 중반에 은퇴하게 되었을 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대학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뉴욕시티발레 역시 단원들이 대학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는 데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과거 미국에서는 무용수들이 발레 공연 연습 외에 공부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레단 스스로가 새로 들어오는 단원들에게 제2의 인생을 미리미리 설계해 둘 것을 권유하고 있다. 발레로만 해서 충족한 경제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특히 다른 직업과는 달리 3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은퇴하게 되면서 생활수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지원제도가 생기면서 무용수들의 은퇴 후 진로도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무용수 생활을 그만 두면 무용교육 일에 종사했다. 그러나 지금은 무용단원으로 있을 때 대학을 다니며 무엇을 공부했느냐에 따라 다양한 제2의 인생을 택하고 있다.

또 소규모 무용단체들이 많은 뉴욕 같은 곳에서는 무용수들에게 그 나름대로 활로

* DCD 센터장인 린다 에이츠의 2008년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주최 세미나 발표문 중에서 참조

가 많이 열려 있는 편이다.*

ABT 소속 발레리노로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다가 은퇴한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무용수 훌리오 보카의 경우 '아르헨티나발레단'을 만들었고, 슈투트가르트발레단에서 주역 무용수로 활동했고 후에 예술감독까지 했던 마르시아 하이데도 지금은 칠레에서 직업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다.

5.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향방

미래 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든 분야에서 더욱 전문화 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술 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앞으로 예술 공연, 무용 작품은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수입 창출을 위한 투자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제작 시스템 역시 전문화 되는 조짐을 보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안무가나 무용수 외에 의상, 음악, 조명, 무대미술 등 전문성이 강화된 제작 스태프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며, 그 결과로 탄생된 작품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점차 시장 기능을 형성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무용계 발전을 위한 중기 정책과제로 발표한 <무용의 힘>은

- 국민들의 창의성 신장의 원동력이 되는 춤 문화
- 세계 무대를 향해 웅비하는 춤 문화
-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춤문화
- 춤을 통한 국가 이미지 고양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심이 되는 춤문화를 표방하며 궁극적으로 춤이 인간과 사회를 위해 함께 하고 예술의 중심이 되는 세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사회는 확실히 앞서 언급한 문화 다양성의 흐름 속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예술의 가치와 예술가의 권리가 무엇보다 전면에서 부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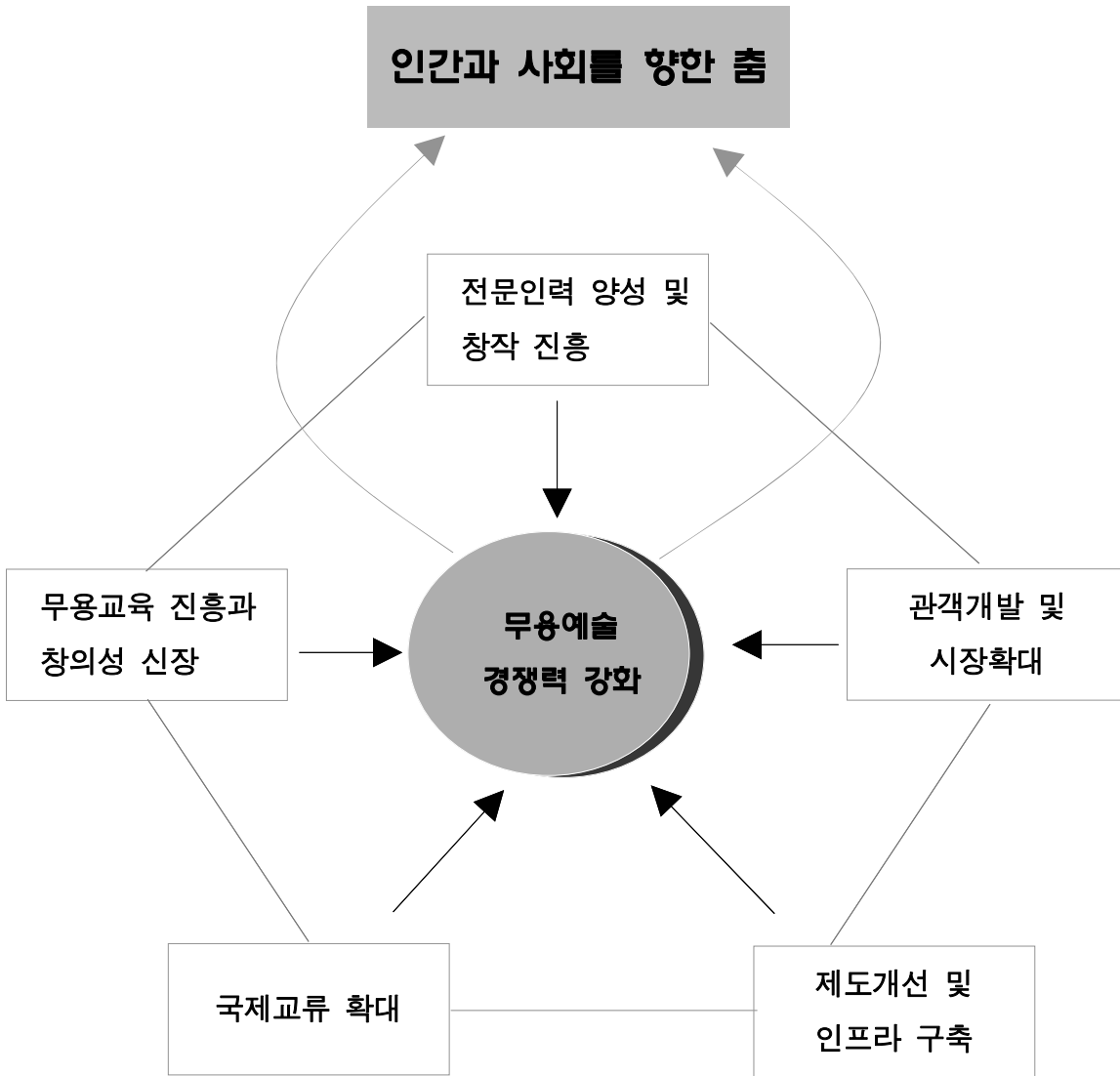
<무용의 힘>은 그 핵심 키워드 중 전문인력 양성 및 창작진흥을 제일 우위에 두고 있다. 무용예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무용수와 안무가는 핵심 요소들이다.

태동한지 7년째를 맞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 역시 무용수의 가치와 그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쪽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술인 복지와 글로벌한 교류를 통한 국제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 세계 무용시장에서 한국 무용계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 "제2의 인생 설계로 고민하는 무용수들" (2007, 연합뉴스, 강일중 편집위원)

** 무용 중기발전 계획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7년 문화관광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토대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향후 보다 질 높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해야 할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본다.

앞서 통계를 통해, 또한 여러 사례에서도 지적되었듯 전문무용수들은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은퇴시기가 빠르며, 상해 발생빈도가 높아 도중에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용은 어릴 적부터 오랜 기간을 통해 연마해야 하기 때문에 무용수란 직업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는 ‘무용예술인 직업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무용수들이 두려움 없이 직업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직종이나 교육 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무용수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다양해 질 것이다.

전문무용수들에게 공연할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 나아가 전문무용수들에게 보다 나은 여건에서 춤 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무용수에 대한 확실한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이를 보다 다양하게 연결시켜주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직업 전환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 상해 부상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공연 감상 시 할인 혜택 확대(공연장이나 축제 등과 연계)
- 각종 워크숍 수강시 할인 혜택 확대
- 무용 슈즈, 분장도구, 연습복 등 필요한 무용용품 구매 시 할인 혜택 확대
- 다이어트 음료나 웰빙 푸드 등 할인 제휴 확대
- 오디션 정보, 연습실 렌탈 정보, 워크숍 정보 등 전문 무용수에게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 확대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된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출범 이후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예산은 2007년 2억, 2008년 4억, 2009년 5억, 2010년 2억8천7백, 2011년 3억, 2012년 2억, 2013년 3억에 이르고 있다. 2009년에 비해 오히려 더욱 줄어들었고 확보된 예산 역시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선 대부분의 사업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인 만큼 새로운 사업 발굴과 홍보 강화 노력을 통해 국고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관련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 개발도 공공 자원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새로 출범한 예술인 복지재단 등과도 협력, 새로운 자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

* 이와 관련 무용평론가 장인주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적인 지원금을 확보하고, 문화계 기금을 모으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서구에 비해 후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무용수의 센터 회원가입비 또는 무용수 분담금을 소집하는 등의 무용수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전문무용수의 직업화는 가능한가?’를 주제로한 2012년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주최 세미나 자료집)

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민 복지,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직업인으로서 무용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윤성주 전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이사장은 “무용과 직업,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무용수는 불안정한 경제적 여건, 정보부재, 공연에 대한 많은 정보와 열려 있는 공연기회의 부족, 의료 및 재활과 같은 빈약한 복지문제, 대중과 동떨어진 무용 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신규 사업 발굴시 예술인의 권리 신장, 예술행위를 통한 국민복지 실현 등 보다 큰 시각에서의 접근으로 센터의 운영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킹에 눈을 돌려야 한다.**

예술 분야도 이제는 다른 무엇보다 네트워킹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제적으로 전문 무용수의 제반 문제와 연계된 기구와 공동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토론하고 입안하고 그 중요성을 보다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논의하고 알려야 한다.

예술가의 지위, 예술인들의 복지 문제가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예술인들의 공통된 이슈임을 널리 알리고, 유네스코가 채택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 명시된, “세계 각국은 예술인의 고용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업운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질이 저하되면 효용성에서나 부가가치 등에서 결국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기는 힘들게 된다. 기존해 해오던 사업이나 새로 시행하는 사업 모두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실을 다지는 작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발제 I |



무용인의 직업 창출과 직업전환

장인주 (무용평론가)

무용인의 직업창출과 직업전환

장 인 주 (무용평론가)**

I. 서론

무용수의 조기 은퇴로 인한 문제는 무용이라는 예술장르가 활성화된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세계적인 고민이다. 이에 따라 발레의 역사가 오래된 구미국가에서는 그동안 무용수 복지뿐 아니라, 은퇴 후 전직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일찍이 무용수 직업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센터를 설립했다. 1973년 설립한 영국의 DCD(Dancers' Career Development)를 시작으로, 1985년에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1986년에는 네덜란드에서 각각 무용수 직업전환센터를 창립했다. 이들 센터는 직업전환을 비롯한 무용수 관련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이들 간의 상호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자의 활동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국제연합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점차 무용수의 활동이 국제화되어감에 따라 전 세계 무용수들의 은퇴 후 직업전환 문제를 총괄하여 접근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1992년 10월, 캐나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고 미국 등 6개국의 대표자들이 스위스 로잔에서 모여 국제기구를 창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듬해인 1993년 10월 스위스 로잔에서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국제연합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IOTPD)'를 설립했다.

이 기구의 사업내용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타 장르의 무용분야에 비해 은퇴 시기가 빠른 발레계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무용수의 직업전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05년 9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직업무용수, 은퇴 이후 무엇을 할 수 있는가?'(국립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주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당시 IOTPD 회장이자 네덜란드 직업전환센터장 폴 브롱크호스트(Paul Bronkhorst)가 참석하여 국내에도 유사한 기관의 설립이 필요함을 전했다.

네덜란드의 전문무용수 재교육을 위한 기금 운용 방식의 지원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무용계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예술인 복지증진노력 지원정책'

* 2012년 심포지엄 '전문무용수의 직업화는 가능한가?'(재_전문무용수지원센터 주최)에서 발표한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수정, 보완하였음.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역임, E-mail: c.injoo@gmail.com

중에서 새로운 방식의 지원 대상으로 받아들여 과감한 지원을 결정했고, 그 결과 2007년 1월 22일 문화관광부의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출범했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DCDC)는 무용기초예술의 기본요소인 인적자원, 그중에서도 무대에서 춤을 추는 무용수의 육성과 권익보호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서구의 무용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역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진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 무용수 상해 및 직업 활동을 돕는 사업을 광범위하게 펼쳤다. 물론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사업을 통해 무용수가 은퇴 후에도 다양한 직업군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2008년 IOTPD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국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구조 탓에 자율적인 사업구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적인 지원금을 확보하고, 문화계 기금을 모으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서구에 비해 후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무용수의 센터 회원가입비 외 분담금을 소집하는 등의 무용수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타 예술장르와 비교해 매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세계적인 위치로 빠르게 발전한 센터가 열악한 재정구조로 인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직업전환센터로서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었다. 무용수 활동 지원과 상해지원에 주력할 뿐, 설립당시의 취지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사업이 국고지원과정에서 전면 취소되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문무용수 직업전환정책은 직업무용수를 포함해 대학을 졸업한 전공자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구상을 요구한다. 전문무용수에 대한 정의도 모호한 상황에서 서구의 전문무용수 정의와 동일한 직업무용수는 물론, 전문무용단체 소속 또는 프리랜서 무용수까지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한다. 매해 1천2백 명에 해당하는 대학졸업자도 대상으로 하여 전문무용수의 길로 입문하지 않아도 바로 타 직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용수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야한다. 창업을 목표로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직업무용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더불어 대학중심의 전반적인 교육 현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무용 근접분야 교육에 이르는 소극적 정책까지 다양한 시각의 접근이 절실하다.

본 글에서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당시 가장 주된 사업목표인 무용수 직업전환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새로운 자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8년 직업전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당시 제시하였던 구체적인 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무용인의 직업창출이라는 큰 뜻 안에서의 직업전환에 대해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II. 직업전환 대상인력 및 경로

1. 직업전환 대상인력 분석

직업전환 대상자 인적 구조를 살펴보면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실시한 『200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의 911개 표본 중 여성이 83.3%로 무용분야가 상대적으로 여성중심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절대적 다수인 여성 무용수들이 직업전환과정에서 겪게 될 문제 즉 출산, 육아 등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보조해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19~25세가 31.9%, 20대 후반이 34.1%로 20대 이하가 총 66%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40대 이상은 5.5%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분야에 비해 무용계 은퇴인력이 젊다는 것을 나타낸다. 젊은 인력이 직업전환에 나설 경우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영역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젊은 인력이 은퇴 후 그대로 방치될 경우의 손실은 막대하며, 따라서 이들이 적시에 직업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업전환 대상자의 교육 구조는 다음과 같다. 『200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에서 직업전환을 원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한국무용 전공이 46.1%, 현대무용이 19.9%, 발레가 15.7%로 무용실기 전공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무용수의 대부분이 다양한 직업훈련 경험이 거의 없을 것임을 드러내며 따라서 은퇴 후 직업전환과정에서 직업전환교육이 절실함을 암시한다.

한편 전문무용수가 되기까지의 교육기간에 대해 설문한 결과 6~10년이 36.1%, 11~15년이 30.8%로 6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4~5년이 11.1%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전문무용수가 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긴 훈련기간을 필요로 함을 나타내며 그만큼 다른 분야의 경험이 적을 것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다른 분야로의 직업전환을 목표로 하는 경우 철저한 재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졸이 57.8%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석/박사 역시 24.6%에 이르고 있는 반면 고졸 이하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무용분야가 상대적으로 고학력 위주임을 드러냈다. 이는 대학진학이 목표인 한국의 교육실정 속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찍이 전문무용수의 진로를 택하기 보다는 대학진학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외에 예술계 특수목적학교인 예술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의 커리큘럼도 일반 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무용 교과과정을 모두 담고 있으며, 따라서 예술적 자질향상에 중대한 시기에 대학진학이라는 목표 속에서 예술적 능력함양의 기회를 많은 부분에서 놓치게 된다. 한해에 1천2백 명 정도의 대학 무용과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일반교과과정을 이수한 무용계인력이 직업전환과정에서 이를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문무용수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무용전공생들이 무방비하게 사회에 노출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무용계 종사자들의 노동형태 또한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용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출처로 ‘주위의 동료/후배를 통해서’가 41.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전문 잡지를 통해서’가 23.8%, ‘인터넷을 통해서’가 18.3%로 드러났다. 이는 공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을 드러낸다.

건강보험(가입자 : 92.9%) 외에 국민연금(가입자 : 59.2%), 산재보험(가입자 : 34.7%), 고용보험(가입자 : 29.8%) 부문의 가입자가 턱없이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예술인들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공립단체 무용수에 비해 민간단체 및 독립무용수들이 사회보장의 공백에 더욱 심하게 노출되어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직업전환 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전직지원금’과 유사한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무용수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무용수들의 경우 고용형태에 있어 ‘기간제/계약직/임시직/축탁직’이 4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규직’이 32.3%, ‘파트타임/시간제’가 8.3%로 나타났다. 직업전환을 위한 재정운동에 있어 ‘공제회’ 구조를 갖출 경우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고정적인 적립금의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위해서는 적립금납부에 있어 특정한 혜택 등 정규직과 다른 방식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본업인 무용을 통해 얻은 수입의 경우 연간 999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36.7%에 달했다. 한편 본업인 무용 외에 겸업을 가지고 있는 무용수는 44.2%에 달했으며 겸업을 갖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46.0%가 ‘본업의 수입 부족’으로 답했다. 전체적으로 열악한 임금수준을 보여준다.

외국에서는 임금 양극화가 주요한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무용계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임금수준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경우 임금 수준은 낮지만 복지수준이 높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열악한 복지수준으로 무용수들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

한편, 이 같은 높은 겸업 비율을 감안하여, 직업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겸업을 주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특히 겸업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제1직업의 수입 부족’이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가 34.7%, ‘관심 분야가 넓어서’가 7.8%로 드러나 겸업의 많은 부분이 무용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관심사에 의해 선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겸업을 직업전환을 통해 본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2. 직업전환 경로 및 정책수요

무용수 은퇴 이후 직업전환 경로는 피고용자가 되느냐 혹은 자영업자가 되느냐에 따라 크게 ‘재취업’과 ‘창업’으로 나뉜다. 또한 진출하는 영역이 기존의 활동 영역이나

혹은 새로운 영역이나에 따라 ‘무용계 내’와 ‘무용계 외’로 나뉠 수 있다. 첫째, 무용계 내로 진출하는 경우의 예는 예술감독, 단장, 안무가, 트레이너, 연출가 등 이다. 둘째, 무용계 외로 진출하는 경우의 예는 조명연출가, 무대제작자, 무대감독, 영상제작자, 기획자, 공연장 운영자, 매니저, 극장 기획자, 홍보마케팅담당자, 교수 및 대학 강사, 무용행정가, 무용평론가, 무용치유사 등이 있다. 그 외 기타 무용관련 사무 등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1) 재취업의 경우

‘재취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은퇴 직후 일정기간 집중적인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관련 경비의 부분 또는 전체를 보조받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취업알선 및 자격증 취득, 인력 수요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문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나 이력서 작성양식, 면접방식 등 취업 요령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직업현장에서 필요한 어학, 컴퓨터, 자격증 취득과정 등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융합함으로써 은퇴무용수가 제2의 직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용계 내의 재취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개인적 인맥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던 무용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탈피하여,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적절한 인력이 양성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무용수로 활동할 당시 가졌던 겸업의 과반수가 무용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러한 겸업을 직업전환을 통해 본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무용계 외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전문무용수로서의 경력을 이용하는 방안과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경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용계와 무용계 외의 영역을 연계하여 무용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무용 경력에서 도출되는 능력이나 무용전공을 통해 받아온 교육 중 새로운 직업군들에 활용 가능한 것들을 목록화 하는 한편, 이를 무용계 외의 직업 영역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경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완전히 새로운 직업탐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무용계 외 재취업의 경우에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유효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2) 창업의 경우

‘창업’의 경우는 업종분석, 입지분석 등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컨설팅 서비스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한편 무엇보다 재정지원, 즉 창업자금에 대한 용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재취업의 경우와 차별화된다. 따라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창업상담을 지원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재정지원을 하거나 은행과 연계하여 저리대부의 형식으로 재정적인 보조를 해주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센터의 특정 교육을 이수하는 등 특정 자격조건을 갖출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처 간 협약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무용계 내 재취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용계 내 창업은 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무용계 내부 정보를 확보한다. 또한 직업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무용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무용계 외 창업 또한 무용계 외 재취업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단, 무용계 외 창업의 경우 사업의 실패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실패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III. 단계별 지원사업 과제

1. 컨설팅 및 취업정보 지원

직업전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취업’ 그 자체가 아니라 취업 주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취업주체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아 만족스러운 직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취업 그 자체가 목적이 될 경우, 많은 경우 취업 주체는 직업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시 직업전환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은퇴무용수의 경우에서와 같이, 때때로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체에 대한 분석 즉 ‘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나에 대한 이해’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담 및 컨설팅 과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직업전환의 첫 단추로서 컨설팅과 함께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체계적이고도 풍부한 ‘정보지원’이다. 정보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직업군 속에 제2의 직업을 찾아나서는 데에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가려내어 그에 시기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직업전환센터에서는 직업전환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취합하여 각 개인에게 적절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직업전환 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 및 컨설팅 그리고 정보지원은 전 지원과정의 진입로에 해당하며, 실제로 지원대상자 자신들이 센터로부터 제공받기를 가장 원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게 직업전환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컨설팅 및 정보지원 부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이나 재정지원 등 가시적인 지원영역들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다. 특히 단순한 ‘상담’으로 인식될 경우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지원이 어렵게 된다.

영국 DCD(Dancers' Career Development)에서는 무용수에게 예민하게 다가오는 직

업전환 과정을 시작함에 있어 ‘심리적인 접근방법’을 강조한다. 전문상담사를 고용하여 1대1 상담, 심리측정,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조연자그룹과의 네트워킹, 인생코칭 세미나 등을 통해 무용수들이 심리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심리적 지원에 있어서 DCD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용수 친화적인 환경’으로, 무용수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직업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적인 직업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네덜란드 SOD(Retraining Program for Dancers, Stichting Omscholingsregeling Dancers)에서는 직업전환, 연금, 건강 및 경제 등에 대한 방대한 범주의 상담을 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직업상담사의 고용 없이 센터장이 도맡아 하고 있다. 또한 직업전환 기획안은 지원자 스스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역시 무용수의 자발적인 의사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직업전환 센터는 모두 무용수의 자발적인 의사가 존중되는 직업전환과정을 강조하고 많은 부문에서 무용수 스스로의 판단에 직업전환 과정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나 이렇게 무용수 자발적인 직업전환을 강조함으로써 자율적인 과정을 유도하는 것과는 별도로, 자기 분석 내지 경력 분석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함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내에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참고할 만하다. 지원대상의 역량 및 장점을 진단하고, 잠재역량을 찾아 적절한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전직지원프로그램 ‘파워풀 체인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1대1 컨설팅과 그룹교육, 시뮬레이션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그 외에도 전직계획수립을 도와 생애설계 지원을 하며, 취업 및 창업 진행 중 모니터링 및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전직을 유도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 컨설턴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컨설팅 과정은 직업전환과정에 접근함에 있어 ‘직업의 전환’보다는 ‘경력(career)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경력’은 ‘직업 + 자신의 이전 직업분야’의 개념으로, 자신이 이전 직업에서 구축해온 인맥, 지식, 기술, 성과, 경험 등을 총괄하여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단순한 정보가 전달할 수 없는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정보, 즉 개인이 어떤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전문성(profession)을 가진 사람인지의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직업군에 접근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쓰일 수 있다. 이러한 ‘경력’ 중심 접근방법을 통해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접근이 범할 수 있는 목적전치의 우를 피할 수 있다. 컨설팅과정은 이렇게 개인의 경력, 그 중에서도 어떠한 이전 가능한 기술(transferable skill)을 가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을 찾아 나섬으로써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 본 해외와 국내의 직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방향설정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직업전환과정에서 학연중심의

폐쇄적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해보면, 먼저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온라인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을 통해 보다 개방적인 정보 공유를 모색할 수도 있다. 정부 간 연계를 통해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민·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취업 알선이나 적실한 기업정보제공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무용수 직업전환센터를 중심으로 양성적인 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음성적 관행을 허물고 보다 효과적인 직업전환 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상담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합리적이고도 분석적인 직업전환과정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집단을 고용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영국 DCD에서는 센터의 전 직원이 상담을 맡고 있으며, 그 외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고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SOD에서는 전문 상담사 없이 센터장이 상담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방법에서부터 센터 직원이 직접 상담을 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수위의 상담 형태가 가능한데, 전직과정의 핵심일 수 있는 이 분야에 있어 가급적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 첫째, 센터와 계약을 맺은 컨설팅 업체의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둘째, 은퇴무용수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센터가 파악하여 관련 기관과 연결하거나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재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업전환센터가 대학 교육기관, 무용 및 문화예술교육 기관, 노동부 산하 기관과 협력하여 재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직업전환센터는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사전에 조사하여 무용수가 개인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해 주고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긴 하지만 교육내용이 한정되어 있고 무용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분야의 인맥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직업전환기관 중 하나인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컨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함께 두 번째 방법을 병행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직업전환센터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연수 혹은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예비 전문무용수인 학생과 이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업인으로서의 무용수를 이해하고 나아가 무용수의 직업전환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지하는데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학부모의 협력체계는 무용수의 직업전환에 동반되는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력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취업과 동시에 일찍이 직업전환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얻어 미래를 설계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학생 지원, 교사지원과 더불어 학부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상담과 학부모연수로 구분하여 자녀의 직업전환교육을 위한 교육을 비롯해 학부모 자신의 창업모델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직업전환을 꿈꾸는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한 재교육프로그램은 필수과제이다.

3. 창업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0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모든 활동분야의 현역전문무용수를 대상으로 은퇴 후 종사하고 싶은 희망직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무용관련 직업으로 전직하고 싶다는 의견이 66.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무용 외 타분야에 대한 희망은 26.4%에 불과했다. 또한 발레분야 현역전문무용수에 대한 은퇴 후 희망직업 선호도 조사(임영숙 2007)를 살펴보면, 무용 및 문화영역 내에서의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81.4%로 압도적이다. 5.7%만이 다른 분야로의 전직을 희망하며, 나머지는 무응답인 경우였다. 같은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창업’을 통한 전직에 대한 구상에 해당하는 사설학원 설립을 희망한다는 의견은 2.9%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보다 높게 나타난 의상(4.3%), 개인교습(12.9%), 무용치료(5.7%), 무용관련 사무(5.7%) 등도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창업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사실상 창업을 통한 전업에 대한 희망은 적잖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은퇴한 발레무용수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경우(13.3%)가 모든 전직 종목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현역무용수들이 재정적인 부담과 창업이라고 하는 모험에 따른 위험부담으로 인해 첫 번째 직업전환의 대상으로 창업을 희망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취업을 통한 전직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업을 위해서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경영과 재무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기본적 능력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창업을 한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창업자금일 것이다.

다양한 창업에 성공 혹은 실패한 무용수들의 실전경험 강연을 비롯해 무용의상 대어업, 무용학원, 무용치료, 공연기획 홍보회사 등 무용 인접분야의 시장전망, 해당분야의 창업을 위한 기본 정보(협력업체, 판로, 홍보방법, 협력파트너 등) 등이 집단적 혹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사, 경영 컨설턴트 등의 상시적인 지원을 센터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은퇴무용수들의 개별적 사례를 데이터로 축적하여 정보뱅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슷한 종류의 창업을 희망하는 무용수들끼리의 공동 워크숍을 통해 새롭게 수집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시하는 것도 긴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창업 준비를 위한 기간 동안, 실직상태에서 생활을 꾸려가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 지급, 창업을 위한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 훈련비용 등은 취업을 통한 직업전환 때와 마찬가지로, 직업전환센터가 담당해 주어야 할 지원이 될 것이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실업급여 지급이 될 것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일종의 실업수당과 창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의 필요성은 취업을 통한 전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창업을 위해서는 그 밖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기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경우는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상당한 수준의 재정지원도 실시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창업지원의 사례는 네덜란드 SOD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네덜란드 무용단체 연합과 무용수 노동조합이 정부에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 문제를 제기한 후, 1986년부터 정부로부터 1백만길더(약 5억원)를 지원받기 시작하여, 현재 운영하는 '네덜란드 무용수 재교육 기금(Dutch Retraining Fund)을 마련하였다. 재교육 프로그램은 무용전공 학생과 전문무용수를 위한 직업소개, 직업전환, 후생연금, 건강, 경제 등 여러 가지 상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상담은 특별한 조건 없이 모든 무용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교육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받고 싶은 교육과 하고 싶은 직업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먼저 무용을 하는 동안 무용수는 후원펀드에 가입하고 투자해야 한다. 은퇴 후 지원받고 싶은 무용수들은 무용생활을 하면서 자기 총수입 중 1.5%를 기금으로 납부하고 소속 무용단체에서도 2.5%를 납부하여, 전체적으로 수입의 4%를 미래의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에 투자한다. 은퇴 후 12개월 이내에 교육기획안을 신청하면 교육비와 교육기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액수는 무용 활동기간,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수준 그리고 교육기획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경력에 최소 72회 펀드에 투자한 무용수일 경우, 평균 총 8만5천유로(약 1억2천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창업을 위한 준비자금으로도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액수이다. 또한 5년 이상 최소 48회 펀드에 투자한 무용수일 경우, 일 년에 2천5백유로 씩 최고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4년간의 수혜금액을 한화로 환산하면 약 1천5백만 원 정도가 된다. 이러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무용수의 75%가 12개월 안에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연간 약 60만유로(약 8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에 비해 현역무용수들의 활동영역이 넓고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직업무용수들과 이들이 속해있는 무용단이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네덜란드 SOD의 재정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가운데, 41.4%를 차지하는 것이 무용인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구성된 자금이다. 거기에 정부의 정기적인 지원금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네덜란드에서와 같은 경우를 한국에 적용해 보자. 우리나라의 월 200만원 수입의 무용수가 3만원씩(1.5%), 소속 무용단이 매회 5만원씩(2.5%) 72회에 걸쳐 분담금을 납입한다면, 10년 뒤 축적되는 원금은 6백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금액을 아무리 잘 운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10년 뒤에 1억원이 넘는 돈이 되게 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무용계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의 핵심은 이러한 무용인들의 분담금이며, 국내 무용수들의 넉넉지 않은 수입이 갑자기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분담금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것은 무용수들이 공통으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연간 1만원의 상징적인 회원가입비를 받고 있다. 『200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의 설문조사 대상이었던 3,800명이 국내 전문무용수의 숫자라고 가정하고, 앞으로 이들 전원이 1만원 연회비를 납부하게 된다고 해도, 그 금액은 연간 3천8백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재정에서 매우 미미한 부분이다. 센터에서는 직업전환과 관련하여 특정분야(클리닉강사, 무용전문스태프인력 등)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만을 실행했으며, 2010년 이후 그나마도 중지된 상태이다. 따라서 창업을 위한 재정지원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용수 개인의 분담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직업전환교육까지만 원하는 경우와 창업에 대한 재정지원까지 원하는 경우에 대해 분담금의 비중을 차별화 혹은 이원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네덜란드 SOD도 초기의 정부의 기초재정지원금에 무용수들의 분담금만으로 운영되다가 10년 뒤 재정파산에 이르렀고,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과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매년 정부예산이 집행되도록 재정구조가 개편되면서, 비로소 지금의 틀을 갖게 되었다.

결국 공적인 재원의 규모 여부에 따라 지원의 폭은 창업자금 용자 혹은 제공까지 가능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네덜란드 정부 정도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다면, 창업자금의 용자와 적정한 분담금을 납부한 무용수들에 대한 창업재정 지원은 충분히 실천 가능한 사업이 될 것이다. 지원금이 이에 못 미친다 해도 기본적으로 용자사업은 위험부담이 있을 뿐 원금을 축소시키는 사업이 아니므로, 정당한 심사기준을 거쳐 통과한 인원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표 1> 무용수 은퇴 후 직업전환 경로에 따른 정책 수단의 구체화

무용수 은퇴 후 직업전환 경로		취업 정보지원 및 컨설팅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경제적 지원
재취업	무용계 내	공적네트워크 구축	위탁교육기관과 연계망 구축	재교육 보조금 지원
	무용계 외	부처 간 협업	맞춤형프로그램 지원 재교육프로그램 세부정보망 구축	
창업	무용계 내	공적네트워크 구축 직업창업프로그램	창업 교육 지원	창업자금 지원
	무용계 외	부처 간 협업		

IV. 결 론

지난 2004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광철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 의원을 중심으로 ‘예술인 공제회 중심의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고,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당시 한나라당 정책공약에 ‘문화예술인 공제회 설립을 통한 창작기반 조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예술인 공제회 설립 검토’가 들어있는 등 국내에서 예술인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2010년 서갑원 의원을 중심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전문 무용수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듯 예술인 전체에 대해 정의내리기가 어렵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상자로서의 필수 자격요건인 근로자에 예술인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부처간의 합의가 어려워 계속 유보되었다. 그러던 중, 2011년 초 최고은 아사 사건이후 예술인 복지법과 관련한 국가적 관심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더욱이 부실대학 선정에 따른 예술대학 관련 논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자살 등 예술인 복지와 관련한 심각한 현상들이 잇달으면서 정치권으로 복귀한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반대에 맞서 예술인 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었다. 그 결과,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은 제정되었고, 2012년 드디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기본 미션으로 하며, 이를 위해 예술인의 직업안정, 사회보장 확대, 직업안정과 예술인을 위한 특화된 복지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재단의 주요 업무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하며 재원 조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예술인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예술활동에 전념하여,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환기하고, 예술인이 우리사회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등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한국영화인복지재단(1984년 설립), 한국연극인복지재단(2005년 설립),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07년 설립)는 결과적으로 그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방향을 재정립해야는 과제를 안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IOTPD의 타 국가기관과 흡사한 직업전환지원기구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예술인 5만 7천 명 중 무용인은 대략 5천명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2012년 기준,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고용형태의 예술인은 창작예술가 8만 898명, 실연예술가 6만 9969명, 예술스태프 2만 5130명 등 모두 17만 5997명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무용인도 상대적으로 1만 5천명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 프리랜서 무용수는 전체의 4/5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혜택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매우 구체적이고 선진적이며 한국의 실정에 맞는 직업 전환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무용인의 직업창출이라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원동력을 가동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무용수 직업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즉 컨설팅,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창업지원 등이 비단 전직 전문무용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무용인이 미래를 계획하고, 무용직종이 보다 전문화, 직업화하기 위한 기초 사업임을 인식해야한다. 즉 직업전환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편협한 선입관을 버리고, 직업창출을 통한 무용예술 확대,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국립발레단·유니버설발레단·서울발레시어터(2005), 직업무용수, 은퇴 이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김상철(2008. 5), 예술인 복지제도를 당연하게 만드는 법제도안 메모, 예술인복지연대 1차 워크숍
 문화관광부(2007), 무용중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
 문화관광부·한국노동연구원(2005), 무용 전문인력 형성구조 분석과 지원방안 연구
 문화관광부·한국노동연구원(2006),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한국노동연구원(2008),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2007),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임영숙(2007), 전문무용수의 은퇴 후 직업전환을 위한 지원모델 개발 연구-발레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문화예술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장인주(2010),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실태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4,
 207-223.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2008), 도전, 그리고 새로운 삶!-전문무용수 직업전환 지원정책의 현재와 미래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추진위원회(2006), 전문무용수를 위한 문화정책과 지원센터 운영방안 모색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07), 200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08), 전문무용수 직업전환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2006), 문화산업 전문인력 형성 구조와 정책 지원
 한국노동연구원(2006), 유럽의 문화예술인력 고용의 특징, 국제노동브리프 4권 10호
- Australia Council(2004), The life of a dancer : Employment, training and career paths,
 Resourcing Dance : Subsidised Australian Dance Sector
 Centre National de la Danse(2005), Le Centre National de la Danse aujourd'hui, rapport
 d'activité 2006
 Joan Jeffri(2005), After The Ball is Over-Career transition for dancers around the world,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11, No.3, pp.341-355
 Joan Jeffri, David Throsby(2006), Life after Dance : Career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Management (Spring 2006), Vol.8, No.3,
 ABI/INFORM Global, pp.54-63
 Joysanne Sidimus(1987), Exchanges : Life after dance, Press of Terpsichore Limited,
 Toronto
 Kelly Hill(2005), A Profile of Professional Dancers in Canada-Based on a questionnaire
 form the DTRC, Hill Strategies Research Inc (February 16, 2005)
 Michael Crabb(2005), Dancers' career Transition-Monaco Dance Forum, The Dancing
 Times (February, 2005)
 Mindy N. Levine(2004), Beyond Performance : Building a Better Future for Dancers and
 The Art of Dance, The aDvANCE Project
 Ministère de l'emploi, du travail et de la cohésion social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2004), La reconversion des danseurs : une responsabilité

collective

William J. Baumol, Joan Jeffri, David Throsby(2004), Making Changes : Facilitating the Transition of Dancers to Post-Performance Careers, The aDvANCE Project

경기도교육청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www.tedu.org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www.vnet.go.kr

네덜란드 전문무용수 재교육센터(SOD) www.kunst-cultuur.nl/KCPV/

미국 전문무용수 직업전환센터(CTFD) www.careertransition.org

소상공인지원센터 <http://www.sbdc.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스위스 전문무용수 직업전환센터(NPT)www.dance-transition.ch

영국 전문무용수지원센터(DCD) www.thedcd.org.uk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국제연합기구(IOTPD) www.ioptd.org

전문무용수지원센터(DCDC) www.dcdcenter.or.kr

캐나다 전문무용수 직업전환센터(DTRC) www.dtrc.ca

프랑스 국립무용센터(CND) www.cnd.fr

| 발제 Ⅱ |



OMSCHOLING DANSERS NEDERLAND

(네덜란드 전문무용수를 위한 직업전환 지원 프로그램 사례)

Paul Bronkhors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IOTPD 회장)

OMSCHOLING DANSERS* NEDERLAND

(네덜란드 전문무용수를 위한 직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 사례)

Paul Bronkhorst* (IOTPD** 회장)

먼저 저를 이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초대해주신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며, 아울러 은퇴를 앞둔 무용수들을 위해 그동안 개발해온 네덜란드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릴 기회를 갖게 된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대 위에서의 삶이 짧다는 것은 무용수의 인생에서 확실한 몇 가지 중 하나입니다. 다른 전문 직업들과는 다르게, 무용수의 경력은 시기의 제약을 받습니다. 무용은 예술적,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적이어야 하므로,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다른 직업들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연령대에 무용수들은 직업을 전환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무용수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도약이요, 그야말로 '그랑 쥬떼(grandest jeté)'가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용수란 다소 독특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짧다는 점에서 무용수가 운동 선수, 패션모델과 종종 비교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델, 축구 선수 혹은 다른 운동선수들의 수명도 짧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위치를 고려했을 때 무용수의 상황은 이들과 전혀 다릅니다. 무용수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못한 것은 아마도 무용수란 직업이 최저임금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용수들은 왜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걸까요? 엄청난 경제적 부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 직업적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젊은 무용수가 아무리 재능이 많다고 해도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무용수의 위치는 미약합니다. 높은 꿈을 가진 무용수들은 세상에 많지만 계약이 성사되는 건 소수입니다. 게다가 이 직업은 부상을 당하기도 쉽습니다.

여전히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무용수를 꿈꿉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만나본 많은 무용수들이 무용수가 되기를 선택하기보다, 어느 순간

* Dancer: 순수 예술 무용공연에 참여하는 무용예술인, 무용수로 지칭하기로 함.

** IOTP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무용수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시작했고 춤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춤이 주는 분명한 만족감과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몸을 지배하고자 하는 육체적 도전과 같은 감정적인 이유들이 그들을 무용수가 되게끔 이끌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무용수가 되는 동기는 곧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용수로 산다는 것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생활입니다. 7시간 대 24시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용수는 일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무용수가 전문적으로 무엇을 하느냐와 무용수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용수로서 은퇴를 결정하는 것은 무용수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무용수로서 은퇴를 한다는 것은 다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 하루 일과
- 수입
- 미래
- 사회적 지위

이는 상실감과 자신감 저하를 불러일으키며 때로는 심한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무용수의 은퇴 결정은 무용 활동을 그만두어야만 하는 사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무용수들은 부상, 혹은 취업 문제나 실직 등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유로 원치 않는 은퇴를 하는 무용수들은 직업 전환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직업 전환을 결정한 무용수들은 삶의 새로운 방향을 스스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모두에게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편안한 방법으로 직업 전환의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무용수를 위한 재교육 기관인 옴스홀링스레글링(Omscholingsregeling)은 198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무용수 노조와 고용주 조합은 1986년 이전부터 네덜란드 문화부의 도움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1백만 플로린*을 재단 설립 초기 자금으로 모금하였습니다. 무용단과 무용수들 모두가 이 기관의 장기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데 동참하였습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창설하기로 한 것은 조심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조기 은퇴 제도, 예를 들어 연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설립의 주요 목적은 무용수들이 별도의 교육 없이 제2의 직업을 갖기 어려운 현실에 처했기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함입니다. 연금이 지급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수입을 제공하는 것은 예산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고 무용수들이 진정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용수의 은퇴는 결과적으로 인적 자본의 낭비가 됨

* 유로 이전에 사용된 네덜란드 화폐 단위 Dutch Florin. 1백만 플로린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4억 원 가량 됨.

니다.

무용수라는 직업의 본질적 특성과 직업의 강렬함 때문에, 무용을 그만 둔 후에 재교육 없이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용에 관련된 직업을 찾는 것에는 무용 경력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무용이 아닌 분야에서 일을 찾는 데는 무용 경력이 전혀 유용한 것이 못되므로 무용수들은 춤을 추면서도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즉, 노동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별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무용수에게 직업전환의 전 과정을 A부터 Z까지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무용수라는 직업이 시기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하여 무용수가 노동 시장에 재입문하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전 과정은 2년가량 소요됩니다.

누가 옴스홀링스레글링(Omscholingsregeling)에 지원할 수 있는가?

옴스홀링스레글링(Omscholingsregeling)은 춤의 장르와 무용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 무용수들이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출발점

맞춤형 지원과 시설 제공

가능한 개인별 상황, 희망사항과 요구 사항을 고려

많은 무용수들이 다양한 희망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처한 상황들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무용수는 단기간 연습 중심의 코스를 선호하고, 어떤 무용수는 현 시점에서 가능하다면 장기간 연구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무용수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고, 몇 개의 코스를 동시에 받고 싶어 하는 무용수도 있습니다. 옴스홀링스레글링(Omscholingsregeling)은 무용수들의 미래 계획의 평가에 무용수 개인 사정과 희망사항,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그것이 옴스홀링스레글링(Omscholingsregeling) 위원회의 기본 원칙이며, 프로그램 또한 개인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원 방법

상담 서비스

재정 지원

상담 서비스/ 직업 조언

직업 상담은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기간 중이면 언제든지 모든 전문무용수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 막 데뷔한 신인 무용수이든 은퇴를 앞둔 무용수이든 관계없이, 무용수가 언제

든 직업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을 때 옴스홀링스레글링(Omscholingsregeling) 직업 상담과 날짜를 정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는 비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옴스홀링스레글링(Omscholingsregeling) 지원 자격

옴스홀링스레글링(Omscholingsregeling)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무용수가 일정 기간 이상 공연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는 활동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금은

- 총 월급의 4%(고용주 부담분 3% + 무용수 부담분 1%)를 납부해야 합니다.

옴스홀링스레글링(Omscholingsregeling) 지원의 종류

- 연구 비용 지원 프로그램
- 연구비와 기초 생활 수당 지원 프로그램
- 해외 이주 시 일회성 지원금 지급

연구 비용 지원 프로그램

- 지원금액: 10,000유로*
- 지원기간: 5년간 48회차 이상 보험금 납부
- 지원분야: 승인된 연구 계획

연구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무용수로서 활동 기간 동안 최소 48회 이상 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은 풀타임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무용수가 원하면 활동 기간에도 지원이 가능하여 은퇴 후 정착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프로그램은 연구과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연구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00유로 입니다.

연구비용은 서적 구매, 등록비용, 각종 자재 구입비용과 교통 경비 등을 포함합니다. 재교육 과정을 참여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 교육 도구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60%까지 지원합니다.

연구비와 기초 생활 수당 지원프로그램

- 지원금액: 무용수의 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 연구비용 지원, 기초 생활 수당 지원

* 한화 약 1,5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10년간 72회 이상의 지원금 지급
- 지원조건: 승인된 연구 계획

10년 이상 경력 기간 중 72회 이상 기금을 납부한 무용수라면 기초 생활 수당과 연구비용,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당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이 끝난 대부분의 무용수들은 “실업 급여”*를 받는데, 수급 기간 동안 실업 급여가 점차로 줄어드는 금액만큼 옴스홀링 스레글링(Omscholingsregeling)이 총당하여 지원합니다. 기초 생활 수당에 대한 지원에는 급여 대체금도 해당되는데, 급여 대체금은 실업 급여가 끝나면 지급됩니다. 물론, 이 경우 급여 대체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이 연구를 진행 중인 무용수들이거나 연구 기간이 실업급여(WW) 혜택 기간 보다 더 길게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급여 대체금은 무용수로서 받은 가장 최근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재정 지원

- 교육, 문화 과학기술부의 제도적 지원금: 연간 601,250 유로
- 무용수와 무용단 지원금: 연간 350,000 유로
- 해마다 약 10명의 무용수 지원

직업 전환이 가능한 자질

- 야망
- 완벽주의
- 목표지향
- 훈련
- 창조성
- 책임감
- 인내
- 스트레스 저항력
- 팀웍
- 지능

가장 자주 묻는 질문: “무용을 그만두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택시 운전, 컴퓨터 과학자, 안마사, 물리 치료사, 변호사, 돌고래 조련사, 헬리콥터 조종사, 무용 교사, 공인중개사, 그래픽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홍보 매니저, 호텔 매니저, 번역가, 작가, 기자, 배우, 간호사, 건설 노동자, 상점 주인, 자이로토닉 강사, 안무가, 요가 강사, 패

* Unemployment Benefit. 약자로 WW라고 부름

선 디자이너, 소산사, 문화 컨설팅, 웹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심리학자, 영화 감독, B&B 운영, 댄스 치료사, 독일 문학 박사, 디지털 영화 제작자, 펠던크라이스 치료사, 자전거 수리공, 판사, 토목, 항공조종사, 개인 트레이너, 연극학, 환경 연구, 오디오 엔지니어, 캠핑 전문가, 조경사, 마케터, 카운슬러, 소프트웨어 개발자, 필라테스 강사, 비디오 마스터, IT 전문가, 영양사 등등

키워드

- 본 프로그램은 노동 조건을 중요하게 여긴다.
- 종합 노동 계약에 준한다.
- 고용주/무용단과 피고용자/노동조합이 관심사를 공유한다.
- 높은 성공률
- 2개의 핵심 요소: 상담 서비스와 재정 지원
- 모든 서비스는 무용수의 입장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무용수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그들이 더 독립할 수 있도록 돕자.
- 당장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보이는 결국에는 돌려받는 것이다.
- 무용수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 폴 브롱코스트(Paul Bronkhorst)

틸 브르흐의 '직업 아카데미 (Akademie Mens Arbeit)'에서 진로 상담 교사로 교육을 받은 후 직업 상담 사무국의 민간 파트에서 6년 동안 일했다. 1986년 네덜란드 무용 위원회의 전문 무용수를 위한 사무관을 이직하였다. 1986년 무용수 전환 프로그램의 설립 이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일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러 무용 관련 기관의 이사회 일원으로 무용에 관련된 컨퍼런스 - <21세기 무용수(The Dancers of the 21st Century)>(1998년, 헤이그), <그냥 아무나가 아니다(Not Just Any Body)>(1999년 헤이그,토론토), <그냥 아무나의 몸과 영혼이 아니다(Not Just Any Body and Soul)>(2004년 헤이그), <어드밴스 프로젝트(the aDvANCE Project)> (2004년 모나코)에 발제자로 초청된 바 있다. 현재 암스테르담 댄스 교류 재단의 이사회의 일원이며, 전문 무용수의 직업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 기구 IOTPD의 설립 멤버이자 현재 의장직을 맡고 있다. 2006년에는 네덜란드 댄스 부문에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아 미리암 보스 상(Mirjam Bos Prize)을 수상했다.

OMSCHOLING DANSERS NEDERLAND

Paul Bronkhorst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the Dancer Career Development Center for the invitation to speak at this seminar. It is a great honor to be here and have the opportunity to explain what program has been developed in our country to support dancers who have reached the end of their performing career.

It's one of the few things in life that a dancer can be sure of, the knowledge that a performing career of a dancer is short lived. Unlike the majority of other professions a dancers career is limited in time. Due to the high level of professional dance, both artistically as well as technically and hence the demands that dancers have to meet, it is not a profession that lasts forever. At an age where in other professions careers are just taking off, a dancer has to face the necessity of a career change and to give a new direction to his or her life. It is probably the biggest jump, the *grandest jeté*, a dancer will ever make.

The position of dancers is quite unique in this matter. When it comes to short careers quite often comparisons are made with athletes or models and that is understandable. The career of the model, soccer player or other type of athlete is also short in duration. Nevertheless the position of a dancer in society is a totally different one. Their status in society is not always considered very high. That is probably the reason why dancers belong to the category of the lowest paid professions.

One may wonder why dancers choose their profession? For sure it is not because of its great financial rewards, it is also not because of a great long-term career perspective. Even though a young dancer may be talented, that is still not a guarantee that he or she will be able to find a job. Their position on the labor market is vulnerable; there are many ambitious dancers and fewer contracts. And the profession itself is prone to injuries.

Still lots of children, youngsters want to pursue a career in dance. Why? In almost every case it is for the love of dance. Most dancers that I have spoken to over the years did not choose to become a dancer but rather found themselves in the profession. They started their training at a young age and got addicted. Most dancers that I know are driven by emotional reasons, the satisfaction that dance obviously gives, the possibilities to express oneself, being involved in art and the physical challenge to master their own bodies. In short: the motivation of most dancers is intrinsic. As a result being a dancer is more of a lifestyle than a profession, it is a 24/7 occupation. Dancers identify themselves strongly with their profession. The line between what a dancer does professionally and who he or she is, is often very thin.

The decision to stop dancing therefore has an enormous impact because it affects every aspect of the dancer's life.

To terminate a dancing career means changes in:

- daily routine
- income/earning perspective
- future perspective
- position in society

Often this results in a feeling of loss, low self-esteem and sometimes even crisis.

How stopping dancing is perceived by the individual dancer is often related to the way the dance career is terminated. Some dancers are pushed out of the profession as a result from injuries, lack of employment (or employment perspective) or were fired. These dancers are very likely to have more difficulties making the transition than those dancers who have been pulled out of the profession. These are dancers who decided themselves that the time is ripe to give a new direction to their lives.

For them it is still not an easy step, but in general these dancers are more likely to overcome transition issues on an easier way.

The Retraining Program for Dancers in the Netherlands was established in 1986. It was the result of a shared effort of the Dancer's Union and the Employer's cooperation. They had started a lobby long before 1986 with the Dutch Ministry

of Culture. Finally it led to a donation of fl. 1.000.000 (app. 700.000.000 Korean Won) to start up a fund. Conditions to be met were that both the dance companies as well as dancers should contribute to the fund to make sure it would survive on the long run.

It was a deliberate choice to create a retraining program and not somekind of an early retirement scheme i.e. an income provision. The main reason was that it was realiz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dancers to pursue a second career without further education and providing an income until the pension age was financially not feasible and unwanted as well. That would be a waste of human capital.

Due to the specific nature of the profession and the intensity of a dancing career it is quite unlikely that a dancer who terminateshis career is able to find another job without retraining. Dancers do acquire skills while dancing and, although this experience is very helpful in many ways, it is very much related to the dancing profession and therefore not very useful to find work outside the dance sector. To create a perspective on the labor market additional education/training is required.

The goal of the Retraining Program is to guide dancers from A –Z through the whole transition process. That process starts with creating awareness that a dancing career is limited in time and continues until the moment that a dancer re–enters the labor market.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this whole process usually takes a couple of years.

Who can apply to the Omscholingsregeling?

The Omscholingsregeling makes no distinction between the various types of dance or dancers. All professional dancers are welcome at the Omscholingsregeling. It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at provides customized advice and counseling, and works on a confidential basis.

Starting points

- Geared to custom–made support, made to measure facilities
- Individual circumstances, wishes and needs are taken into account wherever

possible.

So many dancers and so many wishes. The situation of each dancer is unique. Some are happy with a short, practice-oriented course, some want to take on a long-term course of study, now that it is possible, and others want to start up their own business and combine it with a course or several courses. In assessing someone's plans for the future, the Omscholingsregeling takes as much account as possible of their individual circumstances, ambitions and possibilities. That is the principle of the board of the Omscholingsregeling. The program provides customized solutions.

How

- Counseling services
- Financial support

Counseling services/careers advice

Careers advice is offered to all professional dancers at any time during their career. Regardless of whether their career has just started or is nearing its end, an individual dancer can make an appointment at any time with the Omscholingsregeling careers advisor to discuss questions about his or her career.

There are no conditions or costs attached to this service.

Eligibility for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apply for financial support from the Omscholingsregeling, a dancer must have paid a minimum number of premiums and have danced for a certain number of years.

- To become eligible dancers must pay contributions during their dance career
- One contribution stands at 4% of the gross monthly salary
- 3% is paid by the employer
- 1% is paid by the dancer

Types of financial support

- Reimbursement of study costs
- Study and Income Allowance
- One off payment on moving abroad

Reimbursement of study costs

- €10.000
- 48 contributions in five years
- Approved study plan

In order to be eligible for a refund of study costs, a dancer must have worked for at least five years and paid a minimum of 48 premiums during those years. They do not, therefore, have to be years in which full-time work was carried out. If a dancer thinks it is possible to prepare for resettlement during their dancing career already, they can apply to do so. In this case, an application can be made for taking a course. The maximum amount that can be refunded in this situation is €10.000.

Study costs include the cost of books, registration fees, materials and travel expenses, etc. Sometimes, a course can involve costs that do not arise directly from the course itself, but which can nevertheless be necessary; for example, the purchase of special educational tools. In such cases, these costs can be eligible for a refund to a maximum of 60%.

Study and Income Allowance

- Amount is related to one's dancing career
- Reimbursement of study costs
- Allowance for subsistence
- 72 contributions in 10 years
- Approved study plan

Refund of study costs and costs for maintenance

A dancer who has worked for at least ten years and has paid a minimum of 72 premiums is eligible for a contribution towards the costs of maintenance, a refund of study costs and/or a contribution towards the cost of setting up a business.

A contribution to the costs of maintenance can take various forms. Most dancers who end their career apply for Unemployment Benefit (WW). During this period, a

gradually decreasing supplement to this benefit can be given by the Umscholingsregelung.

A contribution to the costs of maintenance can also consist of a substitute payment; for example when the unemployment benefit comes to an end. In this case, of course, there must be a reason for giving a substitute payment. In most cases, this sort of situation concerns dancers who are studying, and their course of study lasts longer than their WW benefit. This substitute payment usually amounts to 70% of the last-earned salary as a dancer.

Finances

- Structurally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s
€ 601.250 annually
- Contributions dancers and companies
€ 350.000 annually
- To support app. 10 dancers per year

Transferable skills

- Ambitious
- Perfectionists
- Goal-oriented
- Disciplined
- Creative
- Sense of responsibility
- Perseverance
- Stress resistant
- Team spirit
- Intelligent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


What do dancers do after they stop dancing?

cab driver, computer scientist, masseur, physical therapist, lawyer, dolphin trainer, helicopter pilot, dance teacher, real estate agent, graphic designer, costume designer, public relations manager, hotel manager, translator, photographer, journalist, actress, nurse, construction worker, shop owner,

Gyrotonics instructor, choreographer, yoga teacher, fashion designer, midwife, consultant in cultural affairs, website designer, makeup artist, psychologist, film director, bed & breakfast, dance therapist, PhD in German Literature, philosopher, digital film maker, Feldenkrais therapist, bicycle repair man, judge, civil engineer, airline pilot, personal trainer, theatre science , environmental studies, audio engineer, outdoor survival instructor, landscape architect, airline pilot, marketer, counselor, software developer, Pilates instructor, video master, IT specialist, nutrition and so on, and so forth.

Keywords

- The program is considered an important labor condition
- Embedded in the Collective Labor Agreement
- Shared interest between employers/dance companies and employees/unions!
- High success rate
- 2key elements: counseling services AND financial support
- Offers perspective to dancers
- Empowers dancers, makes them more independent
- May seem costly, but pays off in the end
- Is an important asset for the companies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 환경개선을 위한 제언

“2013 전문무용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박호빈 (댄스시어터 까두 예술감독)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 환경개선을 위한 제언

“2013 전문무용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박호빈 (댄스시어터 까두 예술감독)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선진국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들어섰다고들 한다. 불과 10여 년 전만해도 뉴스를 통해 장수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모두가 꿈을 꾸어왔지만 정년이 60세 전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100세 시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 라는 다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올 상반기에 실시한 2013년 전문무용수실태조사에 의하면 전문무용수의 은퇴 예상 시기가 40대가 20.9%, 30대 후반이 15.5%, 30대 중반 10.5%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물론, 무용장르별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30대중반부터는 은퇴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자료1 참조)

특히, 오늘 날처럼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의하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인들보다 빠른 조기 직업전환이란 이런 현실은 전문무용수들에게 냉혹하기 이전에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의 100세 시대는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직업 환경에 안전할 수 없으며, 일정시기가 도래하면 자기 인생에 대한 재인식과 성찰을 통해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은 어떠한가? 인생의 전환이든, 직업의 전환이든 그들의 도약을 도울 수 있는 어떠한 제반여건이나,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당사자조차도 자기에 대한 현실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직업으로서의 예술인에 대한 냉철한 고찰과 그 환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의 의지로 이 시점을 맞이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용사회의 교육환경과 공연현장의 실태와 문제점

1. 한 쪽 편향의 교육시스템과 사회인식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2007년, 2013년 전문무용수실태조사 중 진로준비 시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 무용 전공과의 연관성이 각각 66.8%와 50.5%로 나타났다.(자료2 참조)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반대 급부적인 무용계의 현실이 숨어 있다. 보통 전문무용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란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용된다. 이것은 **무용 교육과 현장이 기량이나 기능위주의 전문성에만 치중** 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기 무용교육으로써는 타당성이 있었으나, 사회가 급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예술적 가치의 변화에는 무감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2. 문화정책에 발 못 맞추는 교육과 현장

또한, 뒤늦게 선진국의 지원제도나 문화정책을 준비 없이 반영하는 탓에 더욱 혼란을 가중시켰다. 사회적 기업제도, 커뮤니티 무용 등은 지금의 교육커리큘럼에서는 그에 타당한 전문가를 키워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제도의 활성화로 창작자의 양적 팽창은 가져왔으나, 무용생태계에 맞는 기획자, 경영자, 연출가나 다양한 디자이너를 키워내지 못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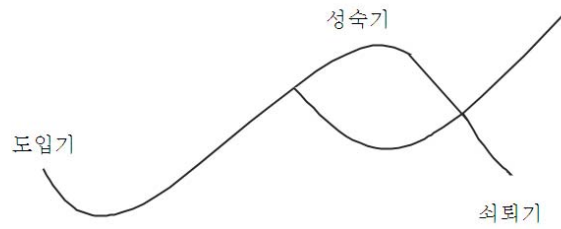
막상 직업전환을 하려해도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진입장벽은 높아 현실성이 떨어지고, 짧은 기간의 직업전환 교육은 그들을 진정한 전문가로 양성하는데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3. 외면 받는 사회교육 시스템과 그 기회

우리 주변에는 마음만 먹으면 생각 의외로 쉽게 다가 갈 직업전환을 위한재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기획인력양성 프로그램, 서울문화재단의 전문예술교육가 양성과정,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재활트레이너 양성 프로그램 등등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면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누릴 수 있지만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64.4%의 응답자가 지원센터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자료. 3참조) 또한 전직의향이 있는 이유에 따른 조사 결과, 노후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241명(44.9%), 생계가 어려워 111명(20.7%), 전문무용수로써 비전이 없어서(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80명(14.9%), 자신의 예술적 능력의 한계 71명(13.2%), 상해 후유증이 심해서 43명(8.0%), 무용에 싫증을 느껴서 17명(3.2%), 기타 57명(10.6%)로 나타났다. (자료. 4참조)

직업전환 환경개선을 위한 그 대안



자료.4 시그모이드 곡선 (Sigmoid Curve)

인생주기와 인생역할을 통해 자신의 진로성숙과 발달의 단계를 예측할 수 있는 시그모이드 곡선(Sigmoid Curve)은 ‘도입-성장-성숙-쇠퇴-소멸’이라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극명히 잘 보여준다. 우리의 성장의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서 가파르게 성장할 때, 그 다음에 오를 또 다른 여정을 서서히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직업전환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후반기의 시작이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재인식과 성찰에서 오는 아름다운 조화일 수도 있다.

1. 특성화되고 융합적인 교육커리큘럼 구축

지금의 대학교육은 일률천편적이다. 각 대학마다 특수한 인재를 양성 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성화 된 커리큘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분화할수록, 전문화할수록 그 만큼 다양한 직종을 창출할 수 있고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 전공 분야와 크로스 되거나 융복합된 다양한 커리큘럼 필요하다.

- 무용전공관련 커리큘럼 : 무용교사 및 강사, 무용노태이터, 커뮤니티 무용강사, 무용치료사, 예술관련 행정관, 기획자 및 감독, 예술감독, 공연 프로그래머, 무대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무용관련 사진, 영상작가, 기록자, 무용수를 위한 피트니스 및 재활트레이너 등
- 무용관련인접분야 커리큘럼 : 뮤지컬, 오페라, 영화 방송 등 인접분야 전문무용수 및 안무가, 비주얼 아트 관련 아티스트, 상업적 프로덕션 제작자 등

2. 단계적 장기적인 직업전환 재교육의 기회부여

직업전환은 1차적인 자기인식변화와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과 적응에 상당한 시간과 금전적인 지출이 따른다. 이것을 개인이 감당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적어도 1년에서 장기적으론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분야도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중장기적 재교육 지원이 절실하다.

- 1단계 : 직업전환에 대한 인식 교육

- 2단계 : 직업전환 예비교육
- 3단계 : 직업전환 교육
- 4단계 : 반복적 재교육

3. 전문적인 직업전환 진로직업 적성검사를 수반하는 전문상담부서 신설

직업의 만족도와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은 직업적 흥미와 동기부여와 상충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격유형, 지능발달의 유형, 진로정체성, 직업흥미(진로동기), 환경적 적응, 개인의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적성검사를 수반 기구가 절실하다. 필요하다면 창업 관련 컨설팅 및 재정보조에 관련된 종합적인 직업상담의 역할을 해야 한다.

* 2013년 전문무용수실태조사 참고자료

- 은퇴 예상 시기 (2013년 전문무용수실태조사 자료1.)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20대 후반	53	3.6%	3.7%
30대 초반	85	5.8%	5.9%
30대 중반	152	10.3%	10.5%
30대 후반	223	15.1%	15.5%
40대	301	20.4%	20.9%
50대	275	18.6%	19.1%
60대	84	5.7%	5.8%
평생직업이다	269	18.2%	18.7%
계	1,442	97.7%	100.0%
응답하지 않음	34	2.3%	-
합계	1,476	100.0%	-

- 진로준비 시 가장 중요한 요인 (2013년 전문무용수실태조사 자료2.)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무용 전공과의 연관성	238	49.1%	50.5%
소득	134	27.6%	28.5%
고용 안정성	74	15.3%	15.7%
기타	25	5.2%	5.3%
계	471	97.1%	100.0%
응답하지 않음	14	2.9%	-
합계	485	100.0%	-

▪ 지원센터 직업전환프로그램 이용 의향 (2013년 전문무용수실태조사 자료3.)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예	892	60.4%	64.4%
아니오	493	33.4%	35.6%
계	1,385	93.8%	100.0%
응답하지 않음	91	6.2%	-
합계	1,476	100.0%	-

▪ 전직의향이 있는 이유 (2013년 전문무용수실태조사 자료4.)

구분	빈도	비율	응답비율
전문무용수로써 비전이 없어서(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80	12.9%	14.9%
생계가 어려워서	111	17.9%	20.7%
무용에 싫증을 느껴서	17	2.7%	3.2%
노후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241	38.9%	44.9%
상해 후유증이 심해서	43	6.9%	8.0%
자신의 예술적 능력의 한계	71	11.5%	13.2%
기타	57	9.2%	10.6%
합계	620	100.0%	115.5%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재)전문무용수 지원센터

| 도움자료 |



2013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자료 (직업전환 관련 부분 발췌)

2013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자료*

무용수의 직업전환 현황

-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있다 108명(7.7%), 없다 1,303명(92.3%)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있다	108	7.3%	7.7%
없다	1,303	88.3%	92.3%
계	1,411	95.6%	100.0%
응답하지 않음	65	4.4%	-
합계	1,476	100.0%	-

-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직업전환 프로그램 5명, 무용재활 트레이너 양성 3명, 상해재활 15명, 진료비 할인 12명, 댄서스 잡마켓 21명으로 나타났다.

구분	이용자 수
직업전환 프로그램	5
무용재활 트레이너 양성	3
상해재활	15
진료비 할인	12
댄서스 잡마켓	21

* 2013 전문무용수실태조사

· 설문기간: 2013년 3월~ 2013년 5월

· 응답인원: 1,538명

- 지원센터 지원제도가 전문무용수 예술 활동에 도움 되는 정도 61.4점
 - 지원센터 지원제도가 전문무용수 예술 활동에 도움 되는 정도에 따른 조사 결과, 매우 도움 됨 85명(7.0%), 도움이 되는 편 247명(20.2%), 보통 637명(52.1%), 도움되지 않는 편 177명(14.5%), 도움이 전혀 안됨 76명(6.2%)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긍정·부정
매우 도움 됨	85	7.0%	27.2%
도움이 되는 편	247	20.2%	
보통	637	52.1%	52.1%
도움되지 않는 편	177	14.5%	20.7%
도움이 전혀 안됨	76	6.2%	
계	1,222	100.0%	100.0%

※ 응답하지 않음 : 254명

-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 1순위
 -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에 따른 조사 결과,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423명(30.3%),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88명(6.3%),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118명(8.4%),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176명(12.6%),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128명(9.2%),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459명(32.8%)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423	28.7%	30.3%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88	6.0%	6.3%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118	8.0%	8.4%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176	11.9%	12.6%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128	8.7%	9.2%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459	31.1%	32.8%
기타	6	0.4%	0.4%
계	1,398	94.7%	100.0%
응답하지 않음	78	5.3%	-
합계	1,476	100.0%	-

▪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 2순위

-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에 따른 조사 결과,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270명(19.6%),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236명(17.1%),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201명(14.6%),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221명(16.0%),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 서비스 247명(17.9%),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199명(14.5%), 기타 3명(0.2%)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270	18.3%	19.6%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236	16.0%	17.1%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201	13.6%	14.6%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221	15.0%	16.0%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247	16.7%	17.9%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199	13.5%	14.5%
기타	3	0.2%	0.2%
계	1,377	93.3%	100.0%
응답하지 않음	99	6.7%	-
합계	1,476	100.0%	-

▪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 3순위

-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에 따른 조사 결과,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217명(16.0%),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218명(16.1%),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229명(16.9%),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213명(15.7%),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 서비스 246명(18.2%),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219명(16.2%), 기타 12명(0.9%)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217	14.7%	16.0%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218	14.8%	16.1%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229	15.5%	16.9%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213	14.4%	15.7%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246	16.7%	18.2%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219	14.8%	16.2%
기타	12	0.8%	0.9%
계	1,354	91.7%	100.0%
응답하지 않음	122	8.3%	-
합계	1,476	100.0%	-

▪ 은퇴 예상 시기

- 은퇴 예상 시기에 따른 조사 결과, 20대 후반 53명(3.7%), 30대 초반 85명(5.9%), 30대 중반 152명(10.5%), 30대 후반 223명(15.5%), 40대 301명(20.9%), 50대 275명(19.1%), 60대 84명(5.8%), 평생직업이다 269명(18.7%) 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20대 후반	53	3.6%	3.7%
30대 초반	85	5.8%	5.9%
30대 중반	152	10.3%	10.5%
30대 후반	223	15.1%	15.5%
40대	301	20.4%	20.9%
50대	275	18.6%	19.1%
60대	84	5.7%	5.8%
평생직업이다	269	18.2%	18.7%
계	1,442	97.7%	100.0%
응답하지 않음	34	2.3%	-
합계	1,476	100.0%	-

▪ 은퇴 후 진로 준비 여부

- 은퇴 후 진로 준비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그렇다 485명(33.8%), 아니다 952명(66.2%)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그렇다	485	32.9%	33.8%
아니다	952	64.5%	66.2%
계	1,437	97.4%	100.0%
응답하지 않음	39	2.6%	-
합계	1,476	100.0%	-

▪ 진로준비 시 가장 중요한 요인

- 진로준비 시 가장 중요한 요인에 따른 조사 결과, 무용 전공과의 연관성 238명(50.5%), 소득 134명(28.5%), 고용 안정성 74명(15.7%), 기타 25명(5.3%)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무용 전공과의 연관성	238	49.1%	50.5%
소득	134	27.6%	28.5%
고용 안정성	74	15.3%	15.7%
기타	25	5.2%	5.3%
계	471	97.1%	100.0%
응답하지 않음	14	2.9%	-
합계	485	100.0%	-

▪ 진로결정 시 무용 전공과의 연관 필요성

- 진로결정 시 무용 전공과의 연관 필요성에 따른 조사 결과, 매우 필요함 117명(24.8%), 필요한 편 213명(45.2%), 보통 97명(20.6%), 필요 없는 편 25명(5.3%), 전혀 필요 없음 19명(4.0%)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긍정/부정
매우 필요함	117	24.8%	70.1%
필요한 편	213	45.2%	
보통	97	20.6%	20.6%
필요 없는 편	25	5.3%	9.3%
전혀 필요 없음	19	4.0%	
계	471	100.0%	100.0%

※ 응답하지 않음 : 14명

▪ 은퇴 후 직업전환 의향

- 은퇴 후 직업전환 의향에 따른 조사 결과, 있다 566명(40.4%), 없다 834명(59.6%)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있다	566	38.3%	40.4%
없다	834	56.5%	59.6%
계	1,400	94.9%	100.0%
응답하지 않음	76	5.1%	-
합계	1,476	100.0%	-

▪ 전직의향이 있는 이유

- 전직의향이 있는 이유에 따른 조사 결과, 전문무용수로서 비전이 없어서(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80명(14.9%), 생계가 어려워서 111명(20.7%), 무용에 싫증을 느껴서 17명(3.2%), 노후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241명(44.9%), 상해 후유증이 심해서 43명(8.0%), 자신의 예술적 능력의 한계 71명(13.2%), 기타 57명(10.6%)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응답비율
전문무용수로서 비전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80	12.9%	14.9%
생계가 어려워서	111	17.9%	20.7%
무용에 싫증을 느껴서	17	2.7%	3.2%
노후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241	38.9%	44.9%
상해 후유증이 심해서	43	6.9%	8.0%
자신의 예술적 능력의 한계	71	11.5%	13.2%
기타	57	9.2%	10.6%
합계	620	100.0%	115.5%

▪ 전직 예상 시기

- 전직 예상 시기에 따른 조사 결과, 은퇴 후 3개월 이내 171명(33.5%), 은퇴 후 3~6개월 188명(36.8%), 은퇴 후 1년 이후 152명(29.7%)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은퇴 후 3개월 이내	171	30.2%	33.5%
은퇴 후 3~6개월	188	33.2%	36.8%
은퇴 후 1년 이후	152	26.9%	29.7%
계	511	90.3%	100.0%
응답하지 않음	55	9.7%	-
합계	566	100.0%	-

▪ 전직 희망 직업



▪ 전직고려 시 어려운 점



▪ 지원센터 직업전환프로그램 이용 의향

- 지원센터 직업전환프로그램 이용 의향에 따른 조사 결과, 예 892명(64.4%), 아니오 493명(35.6%)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예	892	60.4%	64.4%
아니오	493	33.4%	35.6%
계	1,385	93.8%	100.0%
응답하지 않음	91	6.2%	-
합계	1,476	100.0%	-

▪ 무용 활동 중 부상 여부

- 무용 활동 중 부상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있다 800명(55.2%), 없다 650명(44.8%)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있다	800	54.2%	55.2%
없다	650	44.0%	44.8%
계	1,450	98.2%	100.0%
응답하지 않음	26	1.8%	-
합계	1,476	100.0%	-

▪ 최근 3년간 부상 빈도

- 최근 3년간 부상 빈도에 따른 조사 결과, 1~2회 312명(39.6%), 3~5회 297명(37.7%), 5~10회 108명(13.7%), 10회 이상 70명(8.9%)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1~2회	312	39.0%	39.6%
3~5회	297	37.1%	37.7%
5~10회	108	13.5%	13.7%
10회 이상	70	8.8%	8.9%
계	787	98.4%	100.0%
응답하지 않음	13	1.6%	-
합계	800	100.0%	-

▪ 최근 3년간 부상 정도

- 최근 3년간 부상 정도에 따른 조사 결과, 1주 이내 치료 후 연습 및 공연 복귀 351명(45.0%), 1~3개월 정도 연습 및 공연 단절 후 복귀 174명(22.3%), 6개월 정도 연습 및 공연 단절 후 복귀 60명(7.7%), 부상 후 공연 단절 없으나 계속 치료 195명(25.0%)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1주 이내 치료 후 연습 및 공연 복귀	351	43.9%	45.0%
1~3개월 정도 연습 및 공연 단절 후 복귀	174	21.8%	22.3%
6개월 정도 연습 및 공연 단절 후 복귀	60	7.5%	7.7%
부상 후 공연 단절 없으나 계속 치료	195	24.4%	25.0%
계	780	97.5%	100.0%
응답하지 않음	20	2.5%	-
합계	800	100.0%	-

▪ 부상이 공연/연습에 미치는 영향력

- 부상이 공연·연습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조사 결과, 치료 후 정상적으로 연습 및 공연 활동 184명(23.7%), 치료 후 복귀하여 연습 및 공연활동은 계속하지만 부상 후유증으로 고통 지속됨 531명(68.4%), 치료 후 복귀했으나 재발로 인해 수시로 연습 및 공연활동 중단 44명(5.7%), 기타 17명(2.2%)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치료 후 정상적으로 연습 및 공연활동	184	23.0%	23.7%
치료 후 복귀하여 연습 및 공연활동은 계속하지만 부상 후유증으로 고통 지속됨	531	66.4%	68.4%
치료 후 복귀했으나 재발로 인해 수시로 연습 및 공연활동 중단	44	5.5%	5.7%
기타	17	2.1%	2.2%
계	776	97.0%	100.0%
응답하지 않음	24	3.0%	-
합계	800	100.0%	-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재)전문무용수 지원센터

 (재)전문무용수 지원센터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기초예술, 순수예술로서의 무용의 기본 요소인 인적자원, 즉, **무대에서 춤을 추는 무용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용예술인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 창작 활동 개선**을 위한 선진적 지원제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 사업

- 상해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무용을 직업으로서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은퇴를 할 수 밖에 없는 무용예술인이 무용 외의 직업을 선택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무용예술인 직업개발**을 지원합니다.
- 공연 중 부상당한 무용예술인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무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 진료비 일부 및 재활 치료비를 보조하는 **상해재활 지원**과 무용공연 또는 연습 시, 재활트레이너 파견하여 재활 마사지 및 테이핑을 실시하는 **상해예방 지원**을 통해 **무용예술인의 복지**를 지원합니다.
- **무용예술인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댄서스잡마켓, 국제댄서스잡마켓** 지원을 통해 무용단의 구인란과 무용수의 구직란 해결을 돕습니다.
- **심포지엄, 갈라공연** 등을 통해 무용예술인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일반에 알리고 무용예술의 대중화를 꾀합니다.
- **무용 연습실 지원**을 통해 무용단체 또는 무용수에게 작품 준비를 위한 연습실을 제공 또는 임차료를 보조함으로써 무용예술인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개발한 일반인을 위한 신체 인식 교육 프로그램 **BAHA(Beautiful Attitude & Healthy Attitude)프로그램**과, 연기인을 위한 신체 인식 교육 프로그램 **ABC(Actor's Body Conditioning)프로그램**을 통해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합니다.
- 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국제 기구 **IOTP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의 **회원국**으로 영국 DCD, 캐나다 DTRC, 미국 CTFD, 네덜란드 SOD, 독일 Stiftung TANZ, 프랑스 DND, 스위스 RDP, 폴란드PNB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현황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등록 무용수- 2,560명
- 이사회 현황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12인, 감사 1인

2013년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 및 사업 진행 내용

- 2013 무용인 한마음축제 개최
 - 2013년 3월 9일(토) 유니버설아트센터 대극장
- 2013 국내 댄서스잡마켓 개최
 - 2013년 3월 9일
 - 참여: 전문무용단체 23단체 / 무용수 60명
- 2013 상시 댄서스잡마켓: 예산대비 과신청으로 인한 지원 조기 종료
- 2013년 상해재활 지원 중
- 2013년 상해예방 지원 중
- 2013년 직업전환 지원: 예산대비 과신청으로 인한 지원 조기 종료
재활트레이너 양성과정 및 상해예방 트레이너 시범 파견, 공연기획자 양성과정, 무용인 글쓰기 강좌,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 서울사이버대학-대학원 진학 지원
- 2013 직업전환 컨설팅 진행
 - 기간: 2013년 7월~ 8월 (8주간)
 - 장소: 대학로 예술가의 집 제 2세미나실
 - 분야: 무대기술, 무대연출, 무대조명, 무대미술, 공연의상디자인, 공연기획, 무용연구 및 아카이브 등
- 2013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진행
 - 설문기간: 2013년 3월~ 2013년 7월
 - 응답인원: 1,538명
 - 2013년 9월 중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예정
- 2013 후원회 송년의 밤 개최 예정 (2013년 12월 3일)

임원 소개

이 사 장	박인자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상임이사	장승현	춘천 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이 사	김순정	성신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김인희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
	박호빈	댄스시어터 까두 예술감독
	서양범	서울예술대학 영상미디어과 교수
	신동엽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매니지먼트 분야 교수
	안애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이 혁	열린마음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이경태	이경태정형외과의원 원장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지부 지부장
	최경원	사단법인 조각보(평화운동단체) 이사
	최태지	국립발레단 단장
감 사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
자문위원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김학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성기숙	무용평론가, 연낙재 관장
	육완순	한국현대무용진흥회 회장
	윤성주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이종호	서울세계무용축제 예술감독
	장인주	무용평론가
	정재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정태원	변호사
	황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후원회장	허수창	오원종합개발 대표

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기부금 모금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수의 상해재활 및 예방과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전해 주신 기부금은 무용수가 좀 더 나은 조건에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기부가



“춤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귀하의 기부금은 이런 목적에 의해 필요합니다.

1

- 무용수의 복지와 취업 등을 돕는 지원 활동을 위한 사업전개
- 무용수 실태조사, 대중에게 다가가는 무용 강좌 등의 사업 전개
- 무용활동의 활성화 도모

2

- 대중을 위한 무용보급 확대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지향
- 무대공연 중심의 무용활동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여 무용을 통해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귀하의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우수 무용수 양성, 무용수 교육, 공연, 연습 등 무용활동 지원 사업에 국한하여 사용됩니다.
-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엄격히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고 집행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하고 감사의 보고를 통해 기부금의 적정 집행 여부를 통제합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후원해주신 기부자님, 감사합니다!

하나은행, 274-910005-14104

예금주: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동숭길 84-1 연낙재 2층

☎ 02) 720-6202 / Fax : 02) 720-6272

E-Mail : dcdc@dcdccenter.or.kr

Homepage : www.dcdccenter.or.kr

Blog: blog.naver.com/dcdc6202

Twitter : @Dancers_Job

Facebook : www.facebook.com/dcdccenter